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구축 주력

### 유관기관 참여 조성위 구성 정책 방향·계획수립 아동 눈높이 맞춘 행정구현...초등생 참여단 운영

익산시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회탐방과 임시회 등 의회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참여단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아동 관련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기획,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다.

시는 또 아동인권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4

개년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정책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소방서,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정보 공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익산시는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아동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업무협약식. <익산시 제공>

힘쓸 예정이다"며 "이를 토대로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순조

### 정부 사전 적격성 심사 통과...1200억 투입 경매장 등 입주

군산시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력프로젝트 14개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단지는 총 사업비 1200억원이 투입돼 경매장과 품질인증센터, 전시장, 수출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이 입주해 중고차와 중고건설기계, 특장차 등과 함께 부품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형 수출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사전적격성 심사 의견을 반영해 2020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사전 준비단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2021년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군산항 인근 23만㎡ 규모로, 운

영이 분게도에 오르면 연간 228억원의 경제효과와 436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2만대 이상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피 군산시 항만물류과장은 "정부에 산 확보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정읍 내장산에 '우드칩 황토길' 개통

### 편백나무·황토섞인 자연친화적 탐방길 시민·관광객 인기

"편백 나무와 황토 섞인 자연 친화적 길 걸어보세요."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숲을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탐방로가 새롭게 개통됐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100m 구간에 우드칩 황토길(사진)을 시범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드칩 황토길은 시멘트를 섞지 않고 편백 나무를 잘게 만든 우드칩과 황토, 경화제만을 혼합해 만든 자연 친화적 길이다.

일반 황토 포장과는 다르게 탄성력과 흡수성이 좋아 걷기에 불편함이 없어 가볍게 거닐며 환상적인 단풍길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친환경 흙 포장과 목재 자원으로 재활용된 우드칩 포장 등으로 어린이들에

게 도심 속 소규모 생태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장산을 많이 찾는 가을 단풍철에 시민들과 관광객의 반응을 살피고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철을 보내며 우드칩 황토길의 강도와 내구성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부터 전라북도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약 1.8km의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전 구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우드칩 황토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범단계에서 시민들과 관광객



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체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한결 편안한 탐방길 기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딱딱한 골목길에 생동감 불어 넣었어요"

### 남원시자원봉사센터, CJ제일제당 직원들과 벽화그리기 행사

남원시 동충동의 딱딱한 골목길이 벽화길로 탈바꿈했다.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중철)는 지난 19일 동충동 동북교회 앞 골목길에서 CJ제일제당 남원공장(공장장 박종면) 직원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

벽화 자원봉사는 노후한 도심지에 남은 취약지역에 벽화를 그려 생동감을 불

어넣어 미적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벽화 작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인 '드림인공존' 벽화 전문가의 지도아래 200여명의 CJ제일제당 남원공장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동충동새마을부녀회 지원으로 마련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 '해풍고추축제' 23일 해리복지회관 개막

고창의 특산물인 고추를 활용한 '제23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23일 열린다.

해리면 해리복지회관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정정한 고창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을 주제로 개최된다.

해풍고추는 청정고창 해안일대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꺼운 특징이 있다.

또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며 저렴한 가격에 고추를 구입할 수 있다.

군은 주민 화합을 위해 500명분의 비빔밥을 마련해 관광객과 추억을 쌓게 한다. 또 비즈니스를 활용한 고추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건강기원 금줄 만들기, 해풍고추 많이 담기, 고추 무게 맞추기, 고추 꼭지 빨리 따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군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전북도수산기술연, 옥정호 등에 붕어 종자 27만마리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키운 붕어 종자 27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 장소는 익산 구덕제, 김제 능제, 완주 봉동천, 장수 요전, 임실 옥정호, 순창 섬진강, 고창 주진천이다. 붕어 종자는 민물고기시험장에서 관리

하는 어미에게 확보한 수정란을 키워 길이가 4cm 이상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들 종자는 3년 뒤에는 4억3000만원의 어업 소득을 안길 것으로 전북도는 예상한다.

전북도는 2001년부터 붕어 종자 466만마리를 하천과 저수지에 무상 방류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토지 5000평 매매

##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풍을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센) 옆, 현 상업 나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볼카 유치중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